

고대 중국에 있어서 修辭意識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자연물의 상관관계 고찰*

문승용**

目 录

1. 서론
2. 본론
 - 1) 자연神과의 소통을 위한 神聖文字의 탄생과 수사의식의 형성
 - 2) 人文시대의 도래와 諸子百家의 수사의식
 - 3) 春秋戰國時代, 수사의식의 정립과 자연물의 상관관계
 - 4) 魏晉南北朝時代, 문예의 자각과 부흥 그리고 수사의식의 흥성
3. 결론

1. 서론

원시 인류가 탄생하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비로소 언어를 쓰게 되었고, 자신들의 생각과 언어들을 기록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문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인간의 의식과 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修辭意識도 싹터서 발전해 왔을 것이다. 본고는 중국의 어문학 부문에 있어서 수사의식이 태동하고 발전해온 과정이 고대 중국의 각 시대별로 어떤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2011년도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사이버한국의국어대학교 중국어학부, 조교수

특징이 있으며, 또 그러한 특징에 자연의 이치 혹은 자연물들이 문학 창작 방면에 있어서 수사의식에 어떤 작용을 끼쳤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自然이란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상태로서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다. 劉勰이 『文心雕龍·明詩』편에서 “宋대 초기의 작품들은 문체에 변혁이 있었다. 노장사상이 퇴조하고, 산수의 자연미를 노래하는 것이 많아지게 되었다. … 이것이 근세 시인들이 힘쓰는 것이다.(宋初文詠, 體有因革. 莊老告退, 山水方滋. … 此近世之所競也.)”¹⁾라고 언급하였던 것처럼, 南朝 宋代(420~479) 초기 이후 老莊사상이 퇴조하면서 당시 문인들에게 山水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문학 창작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 이제까지의 중국 문학 연구에서는 문학창작의 태동과 자연의 상관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대체로 魏晉南北朝시대 이후라고 보는 경향이 짙다.²⁾

그렇지만, 문학 창작에 있어서 자연물은 매우 일찍부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農耕문화 전통으로 인하여 농사를 짓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연물을 숭배하였다. 특히 자연물 가운데서 생명의 탄생과 생장에 깊은 관계가 있는 태양을 비롯해서 비나 바람과 같은 자연물이 고대 중국인들에게는 매우 신성시 되었다. 이러한 자연물이 매우 이른 시기부터 고대 중국인들의 삶은 물론 문학 창작에 있어서 수사의식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끼쳤으며, 문학 작품 창작의 도구가 되는 문자의 고안에도 매우 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인간 중심의 사회 문화 질서를 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春秋戰國時代에 이르러서는 儒家·道家 및 法家 등의 諸子百家들은 인간 사회와 자연 만물의 이치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들 논의의 공통점

1) 劉勰 著, 詹鍔 義證, 『文心雕龍義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p.308.

2) 小尾郊一 著, 尹壽榮 譯, 『中國文學 속의 自然觀』, 춘천: 강원대학교출판부, 1988, 序章, 제1장 참조: 자연물을 문학 창작의 주요 제재로 사용한 것은 『詩經』, 『楚辭』 그리고 이후 시대인 漢代의 많은 辭賦작품에서 일찍부터 비롯되었지만, 이들은 다만 寄物陳思로서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자연물에 기탁하여 묘사한 것일 뿐이지, 자연에 작가의 감정이 기탁된 것은 魏晉대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가운데 하나가 자연생태계 속에서 조화로운 삶을 중시하는 것이었다. 대개 자연이란 도가의 無爲自然으로부터 개념이 생성되었으리라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공자의 유가에서도 사상적인 연원을 하늘의 道나 天命에 두고 있다. 다만, 유가의 관심 대상은 자연생태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였다는 점이 노자의 도가와는 관점이 다르다.

유가가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인류와 사회를 教化하는 수단으로 여겼지만, 노자의 도가에서는 인류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킨 언어와 문자가 도리어 자연생태계 파괴의 단초가 되었다고까지 여겼다. 도가의 무위자연 사상은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반문명적이며 자연생태학적인 사유체계를 세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듯 유가와 도가 등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문학창작 방면에서 수사의식이 형성되는 데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司馬遷은 「報任安書」에서 『史記』의 저술 목적을 피력하면서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궁구하려고 한다.(欲以究天人之際.)”³⁾라고 하였고, 許慎 역시 『說文解字』서문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세상에 드러나 있는 새나 짐승은 물론 사람 자신과 자연 만물로부터 최초의 문자 형태라고 할 수 있는 八卦가 고안되었다고 하였다.⁴⁾ 이처럼 고대 중국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지 않고, 항상 같은 범주에 두고 그 형성 연원과 발전 과정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만큼 자연 만물은 중국의 역사 문화와 깊은 상관관계를 맺어온 것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주제인 문학 창작에 있어서 수사의식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학 창작에 있어서 魏晉南北朝時代 이후에야 비로소 자연

3) 司馬遷 著 「報任安書」(郭紹虞 著, 『中國歷代文論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9), p.83.

4) 許慎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臺北, 黎明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1986, p.761 : “옛날 庖犧氏가 세상의 왕이 되어 우러러 보아서는 하늘에서 모습을 살피고, 굽어보아서는 땅에서 법도를 살피고, 새나 짐승의 무늬 그리고 세상에 드러난 모습을 보고는 가까이 자신의 주변에서 취하고, 멀리는 여러 사물을 취하여서 易의 팔괘를 만들어서 도리에 맞는 그림을 드러냈다.(古者庖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視鳥獸之文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易八卦, 以垂憲象.)”

물에 작가의 감정이 이입되었다고 여기는 전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그래서 한층 시점을 고대 사회로 끌어 올려서 문학 창작의 근간이라고 할 文字가 고안되었던 商代, 諸子百家의 출현으로 인문주의 사조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는 周代, 그리고 문예의 自覺期⁵⁾라고 할 수 있는 위진남북조시대에 이르기 까지 자연물이 문학 창작에 있어서 수사의식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2. 본론

1) 자연神과의 소통을 위한 神聖文字의 탄생과 수사의식의 형성

自然이라는 용어는 본디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였다. 老子는 『도덕경』 23장에서 “希言이 자연이다. 그러므로 회오리바람은 아침 내내 몰아치지 못하며, 하루 종일 내리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을 누가 일으키는 것인가? 천지이다.(希言自然, 故飄風不終朝, 驟雨不終日, 孰爲此者, 天地.)”⁶⁾라고 하였고, 14장에서는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夷라고 하며,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을 希라고 한다. 잡으려 하지만, 잡을 수 없는 것을 微라고 한다. 이 세 가지는 깊이 생각하여 파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섞여서 하나가 된다.(視之不見, 名曰夷, 聽之不聞, 名曰希, 搏之不得, 名曰微, 此三者, 不可致詰. 故混而爲一.)”⁷⁾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希言은 보통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말이라는 의미이다. 이

5) 魯迅 著, 『魯迅全集』 제3권 「而已集·魏晉風度及文章與藥及酒之關係」, 人民文學出版社, 1989, p.504 : “조비의 시대는 문학의 자각시대, 혹은 근대에서 말하는 예술을 위한 예술의 일파라고 말할 수 있다.(曹丕的一個時代可說是文學的自覺時代, 或如近代所說是爲藝術而藝術的一派.)”

6) 王弼 注, 『老子注-諸子集成 三』, 北京, 中華書局, 1990, p.7.

7) 王弼 注, 위의 책 p.5.

것은 오늘날의 자연과 상당히 다른 뜻으로 쓰인 것으로 도가의 無爲自然이라는 개념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말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진리를 일컫는 소리 없는 소리이며, 人爲의 유한성을 넘어서는 유구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중국에서의 말하기와 글쓰기는 자연을 신성시하거나 呪術的인 것으로 보려는 경향으로부터 발전해 왔다. 『文心雕龍·原道』편에서 “오로지 사람이 거기(천지)에 참여해서 정기를 모을 수 있다. 오행의 뛰어난 기운이며, 참으로 천지의 마음이다. 마음이 생기면 말이 이루어지고, 말이 이루어지면 글 월로 드러나는 것이 스스로 그러한 이치이다.(惟人參之, 性靈所鍾, 是謂三才. 爲五行之秀, 實天地之心. 心生而言立, 言立而文明, 自然之道.)”⁸⁾라고 하였던 것처럼, 이 우주에서 영험한 존재인 인류가 생겨나 사회를 이루고 인간들끼리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한 노력의 단계를 거쳐 왔다고 했다. 이것은 일종의 우주 만물의 생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五行으로부터 연원하여 인류가 사유하고, 말하고, 글을 쓰는 것이 순차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이며, 인간이 말을 하고 글을 쓰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고대 중국에서는 商代의 유물인 甲骨文文字를 통해서 중국인들이 비로소 문자를 고안하여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문자는 흔히 짐승의 뼈나 거북의 배딱지에 사물의 원리나 형상을 그렸다고 해서 甲骨文文字라고 부른다. 그런데 오늘날 문자가 인간 사회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수단인 것에 반하여 갑골문자는 당시 하늘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신[帝]의 뜻을 전달받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神聖文字(hieroglyphic)라고 부른다. 이처럼 고대 중국에서 처음 고안된 문자는 자연만물의 원리나 형상을 묘사하기 위하여 고안된 象形文字라는 의식이 일찍부터 형성되었다. 문자 탄생의 연원이 자연만물의 形狀을 그린다는 의미이듯이, 자연의 원리 또는 그 형상을 모방하는 것으로부터 문학 창작의 수사의식도 함께 형성되었다.

帝자를 예를 들면, 許慎의 『說文解字』에서 글자 형태와 의미를 풀이하여서 “살핀다는 뜻이다. 세상을 다스린다는 칭호이다.(諦也. 王天下之號也.)”⁹⁾라고

8) 劉勰 著, 詹鍔 義證, 위의 책 p.4.

하였다. 본디 帝자는 꽃받침과 꽃대가 서로 이어진 형상이거나 제단 위에 여자의 생식기가 놓인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꽃과 여자는 모두 생명을 잉태하는 근원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商代에는 우주 만물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원리를 주재하는 조물주와도 같은 존재를 帝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帝는 만물의 창조주로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듯이, 당시 고대 중국인들은 만물의 생성에 관한 인식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⁰⁾

중국의 농경문화 전통은 일찍이 중국인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물이나 원리에 대한 숭배의식은 일찍부터 형성되었으니, 하늘의 上帝는 인간세상의 농경을 비롯한 모든 일의 성패를 주재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여긴 것이다.

그래서 햇별이나 비, 바람과 같은 것들이 이 세상의 생명체가 생성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라는 의식이 문자와 언어의 생성과 수사의식에도 매우 깊게 반영되어 있다. ‘바람 風’자는 벌레[虫]를 바람이 휘어감은[几] 모양을 하고 있다. 이것은 벌레가 봄날 따스한 햇별을 쬐이면서 꿈틀대며 살아나는 것이니, 바람이 봄을 알리는 것이라는 의식으로부터 고안된 것이다.¹¹⁾

이렇듯 문자가 하나하나 생성된 이후 한층 진전되어 문장의 형식을 갖춘 卜辭에서는 그러한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卜辭 가운데 “丙子日에 풍향계를 세우려는데, 봉황(바람)이 없었지요?(丙子其立中, 亡鳳.)”¹²⁾라고 한 것이 있다. 여기에서 바람 風자는 발음이 비슷한 봉황새 ‘鳳’

9) 許慎撰, 段玉裁注, 위의 책 p.2.

10) 王弼注, 위의 책 p.2: 『道德經』4장에 “도는 비어 있어 쓰더라도 혹 차지 않으며, 깊은 것이 마치 만물의 으뜸인 것 같다. … 나는 그것이 누구의 자식인지 못하니, 帝 보다 앞선 것 같다.(沖而用之, 或不盈, 淵兮似萬物之宗. …吾不知誰之子, 象帝之先.)”라고 하여 道와 帝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11) 許慎撰, 段玉裁注, 위의 책 683p: “八風이 있다. … 벌레라는 뜻이며, 소리는 범(凡)이다. 바람이 불면 벌레가 생겨난다. 그러므로 벌레는 8일이면 생겨난다. 무릇 風에 속하는 것들은 모두 바람이라는 뜻이다.(八風也. … 從虫, 凡聲. 風動蟲生. 故蟲八日而化. 凡風之屬皆從風.)”

12) 梁東淑著, 『甲骨文解讀』, 서울, 書藝文人畫, 2006, p.725.

자로 假借되어 있다. 이것으로부터 당시 중국인들이 신성한 새인 鳳凰과 바람을 유사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람은 봉황의 날갯짓을 통해서 부는 것이며, 이것이 농사를 돕고 생명체에게 숨을 쉬게 할 수 있는 생명의 기운을 주는 존재라는 믿음에서 바람 風자를 봉황 鳳자로 가차하여 쓴 것이다.

이것은 마치 기독교 성경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었다는 구절의 내용과도 매우 흡사하다. 바람이 단순하게 기압의 차이로 생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商나라 때에는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점을 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갑골문자와 漢代 『설문해자』 등의 풀이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자연원리와 그 형상에 대하여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다.

商代에는 上帝가 우주만물과 인간 세상을 주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당시 집권자들은 자신들만이 상제와 소통한다고 내세워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당시 정권 담당자들은 조정에서 상제에게 제사를 올리며 하늘의 뜻을 물었다. 이것이 고대 중국에서 일찍이 신의 뜻을 살피기 위한 문자가 고안된 연유이며, 이것으로부터 당시 지배층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신성하다고 자처할 수 있었다.

周代에는 ‘하늘 天’자가 帝자의 신성한 권위를 대체하게 되었다. 갑골문자에서 天자는 사람[大] 머리 위에 획이 더해진 형상으로서 帝자와 마찬가지로 하늘[天]은 인간 위에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商代에 上帝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였던 것처럼, 周代에는 하늘에 대한 숭배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권위를 보장 받으려고 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중국과 같은 농경민족의 경우 상업이나 유목을 위주로 하는 다른 민족에 비하여 먹고 살아가기 위한 관건이 자연환경 가운데에서 햇볕, 비, 바람 등으로부터 만물이 생성한다는 의식을 반영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帝나 天이 조물주로서 종교적인 인격신적인 의미이든 아니든 하늘은 절

대적인 존재이고, 이 자연에는 우주만물의 운행질서를 주재하는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고 여겼다. 이러한 의식으로부터 고대 중국인들의 삶으로부터 문학 창작에 있어서 수사의식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연만물을 주재하는 上帝의 말씀을 담은 것이라고 여겨진 갑골문자와 卜辭들 속에 반영된 수사의식도 인간에게 지식과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지배층들은 신에게 점을 치면서 때로는 자신의 의도나 예상에 어긋나는 占卜이 나오게 되면 자신이 바라는 점이 나올 때까지 거듭 점을 치기도 하였다. 이것은 그때까지 숭배의 대상이었던 자연물에 대한 인식에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자연신을 숭배하던 주술적인 의식이 강했던 商代를 거쳐서 周代에 이르러 神 중심의 의식이 인간 중심으로 점차 바뀌어서 인간사회와 그 주변 자연물에 관심이 옮겨갔다. 이러한 정황으로부터 말을 하고 글을 쓰는 방면의 수사의식 역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2) 人文시대의 도래와 諸子百家의 수사의식

周왕조에 들어서서는 商代와 같은 占卜 행사가 공식적으로 행하여지지 않았지만, 갑골문자는 周 왕실이 洛陽으로 수도를 옮긴 후 춘추시대 초반까지 쓰였다. 갑골문자의 체계가 크게 변형되기 시작한 것이 춘추시대 중기 秦 景公 元年(기원전 575년) 무렵일 것이라고 추정하며, 춘추 중엽 이후 제작된 靑銅器 銘文의 형태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당시 각국에서 쓰던 문자형태의 분열 양상이 심화되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³⁾

갑골문자는 周나라가 건국된 이후까지 상당 기간 사용되었지만, 갑골문자가 金文을 거쳐서 춘추시대 중기 이후에는 商代 이후 내려오던 갑골문자의

13) 白川靜 著, 심경호 옮김, 『漢字 백 가지 이야기(漢字百話)』, 서울: 황소자리, 2005: pp.223~226 참조.

체계가 흐트러지고 각 제후국들마다 각기 다른 형태로 변화였다. 그러므로 商나라가 멸망하고 周나라가 건국되었지만, 당시 주나라 모든 지역에서 문자를 비롯한 다른 문화 양상까지도 한꺼번에 바뀐 것이 아니며, 周나라 건국 이후 500여년이 지난 다음에야 주나라 특유의 인간 중심 문화가 새로이 기틀을 잡아갔던 것이다.

한편, 儒家학파의 개조인 孔子는 『論語·衛靈公』편에서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니다.(人能弘道, 非道弘人.)”¹⁴⁾라고 하여서 우주만물 생성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도(道)의 개념을 새로이 제시하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바른 삶인가와 같은 윤리 도덕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그때까지 인간사회를 주재한다고 믿었던 道로부터 벗어나 인간중심의 문화를 세우고자 하였다. 이로부터 周왕조는 문화 중심이 신으로부터 인간으로 옮겨갔다고 할 수 있다.

언어 문자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것은 문자가 周代에 이르러서 인간사회에서의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商代에는 왕실에서 일종의 神託을 통한 통치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갑골문자가 周代에 이르러서 당시 諸子百家 각 학파들의 이념을 전달하는 도구로 문자가 쓰이는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周代에 이르러 언어와 문자가 인간의 사유를 표현하는 역할을 맡기 시작하면서 인간사회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특히 주나라 후반기인 春秋戰國時代에 이르자 諸子百家들이 자신들의 학술 사상을 정립하여 지식을 세상에 널리 보급하고, 또 그것을 정치 방면에까지 적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당시 제자백가들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교육자이면서 역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해 보고자 했던 정치지망생이었다. 그들은 말과 글을 어떻게 써야 자신의 사상을 각국의 제후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여 현실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이때 제자백가들에 의해서 말과 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14) 朱熹 撰, 『四書章句集注』, 北京: 中華書局, 1995: p.161.

궁구하는 修辭學이라는 학문 영역이 비로소 형성되어 발전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서구의 修辭學 영역이 말하기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고대 중국에서는 글쓰기가 더욱 중시되었다. 그것은 중국이 지역적으로 매우 넓지만, 고립된 대륙 안에서 농경생활을 영유하였다는 문화지리적인 방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당시 중국이 통치해야 하는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 서로 소통하기도 쉽지 않았다. 또 황제 중심의 강력한 전체 통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자와 같은 表意文字 체계가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에 유리했기 때문에 중국은 서구에 비하여 글쓰기를 보다 중시하였다.

물론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들이 여러 지방으로 유세를 다니며, 자신의 정치주장을 펴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를 수단으로 삼았을 것이다. 당시 각 지방마다의 方言을 다 익혀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는 없는 입장에서 말보다는 표준화된 문자와 글을 쓰는 것이 더욱 유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주나라 제자백가들이 자신들의 논리와 사상주장을 펴기 위해서 말하고 글을 쓰던 활동이 당시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문화가 확대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들 제자백가들의 수사학에 자연의 원리나 자연물들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궁구하는 것은 이후 중국의 언어와 문자, 그리고 수사학의 발전 양상에 끼친 영향과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다.

춘추전국시대는 각 제후국들끼리 주도권 다툼을 하던 전란의 시대였다. 이때 제자백가들은 각기 자신들의 사상 주장을 폈는데, 그 내용은 대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바른 삶인지와 같은 윤리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제자백가들은 각기 다양한 방면의 주의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그들 학파만의 수사 방식을 가지고 자신의 사상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말이나 글을 이치에 맞게 꾸며 쓰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고대 중국에 있어서 수사학의 형성과 발전을 이끌었다.

3) 春秋戰國時代, 수사·의식의 정립과 자연물의 상관계

고대 중국에서 修辭라는 용어는 『周易·乾卦』에서 “말을 하는 것은 진실을 세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修辭立其誠, 所以居業也.)”¹⁵⁾ 라고 한 것에서 처음 쓰였다. 이때의 修辭는 글을 짓는다는 의미로서 오늘날과 같은 체계를 갖춘 修辭나 修辭學의 개념으로 쓴 것은 아니었다. 말과 글을 효과적으로 꾸미는 수식의식은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사상을 당시 각 제후국 군주들에게 유세하였던 제자백가들에 의해서 면면히 이어져 왔다. 특히 孔子의 儒家와 老子의 道家를 중심으로 墨子, 楊子, 荀子 등을 거쳐서 韓非子의 法家에 이르러 제자백가 사상이 집대성된 것과 함께 제자백가의 수사·의식 역시 총결을 거두었고, 兩漢대를 거쳐서 南朝 梁代 劉勰의 『文心雕龍』에 이르러서는 오늘날과 같은 수사라는 개념이 비로소 정립되었고 평가할 수 있다.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儒家와 道家는 뜻을 전달한다는 언어의 기능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말하고 글을 쓰는 방면에 있어서 자연물에 빗대어서 자신의 사상을 말하고자 하는 수사적인 성향이 강하였다. 儒家에 나타난 자연관과 수사·의식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孔子가 『論語·陽貨』편에서 “나는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 하늘이 어찌 말을 하더냐? 사계절이 운행하고, 만물이 나거늘, 하늘이 어찌 말을 하더냐?(予欲無言 ... 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天何言哉?)”¹⁶⁾라고 하여서 시간이 그저 흐르고 만물은 나고 자라는 것일 뿐이며, 하늘이 그러한 사정을 하나하나 말로 무어라 표현하지는 않듯이, 공자 자신도 말하는 데에 그다지 중점을 두지 않는다고 하였다.

『周易·繫辭上』에서도 “글은 말을 다 나타내지 못하고, 말은 생각을 다 표현할 수 없다.(書不盡言, 言不盡意.)”¹⁷⁾라고 하였다. 이처럼, 유가에서는 언어

15) 清 阮元 校刻, 『十三經注疏-周易正義』, 北京: 中華書局, 1980, p.15.

16) 朱熹 撰, 위의 책 p.180.

와 문자가 자신의 사상이나 이념을 제대로 옮길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 공자의 유가에서는 기본적으로 글이란 말하고자 하는 이의 생각을 정확하게 다 표현할 수 없으며,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다지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렇지만 역시 『周易·繫辭上』에서 성인이 象을 세우고 卦를 두어 易에 해설을 달아 자연만물의 이치를 설명하려는 여러 가지 修辭上의 노력을 부정하지는 않았다.¹⁸⁾

공자 수사외식에는 老子와 더불어서 자연물을 빗대어서 자신의 뜻을 펴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論語·子罕』편에서 공자가 시냇가에 서서 흐르는 물을 보고 “흐르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쉬이 없네.(逝者如斯夫! 不舍晝夜.)”¹⁹⁾라고 하였다. 朱子は 『論語集注』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이 이처럼 빠른 것을 두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학문에 전념하는 뜻이라고 풀이하였지만,²⁰⁾ 이것은 자연의 대표적인 물체의 하나인 물의 흐름을 두고 마치 세상이 변하는 것이 것처럼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공자의 물에 대한 비유 가운데 「雍也」편에서 “지혜로운 이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이는 동적이고, 어진 이는 정적이다. 지혜로운 이는 낙천적이고, 어진 이는 오래 산다.(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²¹⁾라고 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물이란 스스로 흘러 변화해 가는 속성을 가진 것이니, 물을 좋아한다는 의미는 지혜로운 이가 민첩하게 세상에 잘 적응하는 것이 마치 물의 속성을 닮았으며, 어질다는 것이 마치 산처럼 변함이 없는 세상 만물의 이치와 같다는 뜻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17) 清 阮元 校刻, 위의 책 p.82.

18) 清 阮元 校刻, 위의 책 p.15: “성인은 상을 세워서 뜻을 다하고, 괘를 두어서 사실과 거짓됨을 다하며, 거기에 말을 달아서 하고자 하는 할 말을 다하며, 변할 줄 알아 통하여서 이로움을 다하며, 복을 치고 춤을 추어서 신묘함을 다한다.(聖人立象以盡意, 設卦以盡情偽, 繫辭焉, 以盡其言, 變而通之, 以盡利, 鼓之舞之, 以盡神.)”

19) 朱熹 撰, 위의 책 p.113.

20) 위와 같음: “皆勉人進學不已之辭.”

21) 朱熹 撰, 위의 책 p.90.

이처럼 공자가 물의 속성을 빌어 자신의 이념을 밝히고 있듯이, 맹자 역시 그의 「離婁」하편에서 공자가 어찌서 물을 자주 비유로 들어 일컫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답변하기를, “근원이 있는 샘은 괄괄 솟아 밤낮을 쉬지 않고 흘러가며, 웅덩이를 채우고 난 다음에 흘러가 사방의 바다로 퍼진다. 근본이 있는 것이 이와 같다. 이 때문에 취하는 것이다.(原泉混混, 不舍晝夜, 盈科而後進, 放乎四海, 有本者如是. 是之取爾.)”²²⁾라고 하였다. 이것은 마치 모든 물 길에는 근원이 있듯이, 인간도 자신의 근본인 부모에 대한 효도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만 최종 목적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역시 물의 속성을 가지고 비유한 것이다. 이처럼 유가의 공자와 맹자는 자신의 사상이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이나 산 등을 빗대어서 자연만물의 원리와 인간 세상의 이치를 빗대어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한편, 道家의 老子는 사회현실 정치를 도외시하며 인위적인 속성이 강한 말이나 글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반문명적인 無爲自然 사상을 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자 역시 자신의 학술 사상과 정치적인 견해를 펴기 위해서 수사의식에 관련한 논의를 다양하게 제기하였다. 노자는 『道德經』에서 만물의 운행 원리인 道와 그것의 실천원리인 德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궁구하였다. 『道德經』 25장에서 “인간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道를 본받고, 道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²³⁾라고 하여, 인간사회의 모든 이치는 역시 하늘의 자연스러운 도로부터 나온 것이며, 인간은 마땅히 그 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간 역시 자연물의 하나로서 無爲自然한 원리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인간 스스로의 행복을 지키는 방도라고 한 것이다.

노자 수사의식의 요점도 유가와 마찬가지로 언어와 문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불완전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자 『道德經』 1장에서 도의 원리를 풀이하여서 “이름을 무어라고 이를 수 있으면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

22) 朱熹 撰, 위의 책 p.293.

23) 王弼 注, 위의 책 p.14.

다.(名可名, 非常名.)”²⁴)라고 한 것이나, 聖人は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실행 하며(行不言之教)”²⁵), “지혜로운 자는 말하지 않는다.(知者不言)”²⁶)라고 하였다. 이것은 본디 노자가 우주만물의 생성 근원인 道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언급한 것이면서 인간의 언어와 문자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수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인간은 세상 만물이나 이념을 하나하나 인위적으로 정의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작업이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나 이념을 억지로 무엇이라고 한정하여 표현하려는 시도 역시 의미가 없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노자의 도가에서는 근본적으로 언어와 문자의 작용을 부정하는 역설적인 주장을 펴고 있으며, 이러한 원리는 애써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무위자연의 원리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道德經』8장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할 수 있으면서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자리한다. 그러므로 道에 가까운 것이다.(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²⁷)라고 한 것이나, 78장에서 “세상에서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지만, 굳세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에 물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天下莫柔弱於水, 而攻堅強者, 莫之能勝.)”²⁸)라고 한 것에서 인간이 물의 속성을 배워서 겸손하고 너그러워야 한다는 것 역시 자연의 이치이며, 인간 사회에서 조화로운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식 역시 물의 성질을 빗대어서 설파한 것이다.

이처럼, 고대 중국에서 자연물을 비유하여 말하는 수사기법의 발전은 중국의 독특한 자연환경에 기인한 것이다. 중국의 서북쪽에는 사막이, 서남쪽으로는 고원지대가, 남쪽으로는 밀림으로 둘러싸인 비교적 척박한 주변 지역으로

24) 王弼 注, 위의 책 p.1.

25) 王弼 注, 위의 책 p.1.

26) 王弼 注, 위의 책 p.34.

27) 王弼 注, 위의 책 p.26.

28) 王弼 注, 위의 책 p.34.

두루 막혀 있는 고립된 환경과 농경전통의 문화지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이며, 고대 중국에서 인간은 그러한 자연의 이치를 잘 헤아리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문학 창작 방면의 수사의식에서도 역시 항상 자연의 이치나 자연물에 비유하려는 경향을 공자나 노자에게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춘추전국시대는 유가나 도가를 비롯한 諸子百家들의 사상 주장이 널리 보급되던 시대였다. 그러기 위한 수단으로서 언어뿐만 아니라 문자의 사용능력도 요구되는 시대였다. 그들은 대체로 商代 이후 여전히 절대적인 신봉의 대상이었던 하늘 즉 자연의 이치를 믿고 따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사상과 이념 주장을 당시 제후국 군주나 그들 제자들에게 일깨우고, 어떻게 하면 말과 글에 적절하게 반영하여 표현하느냐 하는 수사의식도 아울러 형성시켜 발전해 나아갔다.

유가와 도가를 포함한 다른 학파의 사상 내용이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 그들의 근본 취지는 하늘[天]의 이치를 탐구하고 그것에 따르고자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 특히 유가가 인간의 인위적 노력을 강조하였던 것이라면, 도가는 유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인위적인 요소가 오히려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속성을 해친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도가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 자연친화적인 사조를 제기했다. 그렇지만 유가와 도가가 이처럼 상방된 논의와 이념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둘 다 인간이 본디 자연에 속한 일부분으로서 자연과의 조화와 합일을 중시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商代까지 특권 지배층만이 쓰던 문자가 周代의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 제자백가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도 점차 확대되어 나아갔고, 이들에 의해서 말을 어떻게 해야 하고 글을 어떻게 써야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옮길 수 있는가와 같은 수사의식도 비로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수사의식이 자연물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본격적으로 궁리되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한자를 비롯한 세계 주요 문자들이 처음에는 뜻글자인 상형문자로 생성

되었다가 표음문자로 변화해 간 데 반하여 한자는 표의문자의 형태를 거의 유지해 왔던 것 역시 중국이 다른 지역과 고립된 대륙에 위치하며 농경문화 전통을 바탕으로 전제 왕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언어와 문자가 형성되었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고대 중국에서의 修辭學이 비롯되고 발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魏晉南北朝時代, 문예의 자각과 부흥 그리고 수사학의 흥성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들이 그들의 학술과 사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특히 자연물이나 그 원리를 빗대어서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가운데 수사 의식과 기법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儒家가 나라의 이념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던 漢代에는 사회교화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經學이 우월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문예가 침체하였고 수사학이 이전보다 다양하게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魏晉南北朝時代에는 이전 춘추전국시대와 같이 전란이 거듭되어 세상이 어지러워지면서 유교이념이 약화되고 도교를 발판으로 佛敎가 번성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魏晉시대는 문예의 自覺期를 맞게 되었고, 이후로 문학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도 다양한 문예이론이 풍성하게 되었다.

특히 晉代 陶淵明의 田園詩와 宋代 謝靈運의 山水詩는 인간사회와 자연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려는 창작을 시도하였다. 특히 山과 물[水]은 자연의 속성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여기기는 하였지만, 산수를 대상으로 하는 山水詩들은 다만 산수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시대상이나 작가 개인마다의 고유한 삶의 역정도 그것들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문학 이론방면에 있어서 晉代 陸機의 「文賦」, 梁代 劉勰의 『文心雕龍』과 鍾嶸의 『詩品』 등은 자연만물이 문학 창작에 있어서 직접적인 동인이 된다는 의식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 특히 陸機 「文賦」의 서문에서는 자연

만물에 대한 感興이 문학창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문학창작을 위한 준비단계의 정황에 대하여 이르기를

천지간에 우두커니 서서 두루 살피고, 옛 전적 속에 파묻혀 성정을 키운다. 사계절의 변화와 함께 하며 세월이 흘러감을 탄식하고, 온갖 사물을 바라보니 생각이 어지럽다. 깊은 가을날 낙엽에 슬프고, 꽃피는 봄날 돌아오는 새싹에 기쁘다.(佇中區以玄覽, 顧情志于典墳. 遵四時以歎逝, 瞻萬物而思紛. 悲落葉於勁秋, 喜柔條於芳春.)²⁹⁾

라고 하였다. 이것은 문학 창작에 있어서 작가의 古典에 대한 지식 함양과 더불어서 문학 창작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시간과 자연만물을 통해서 상상력을 풍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러한 문학적 상상력이 깊은 가을날의 落葉과 꽃피는 봄날의 부드러운 새싹 같은 자연물에 대한 구체적인 감성적 경험으로부터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다.

陸機는 「文賦」에서 문학 창작론을 집중적으로 펴고 있다. 육기는 창작에 있어서 구상, 대상, 언어의 상관관계가 조화롭게 융합되는지를 중시하여서 “구상(意)과 표현 대상(物)이 서로 어긋나지는 않는지, 표현[文]이 구상[意]을 제대로 따르는지를 늘 염려한다.(恒患意不稱物, 文不逮意.)”³⁰⁾라고 하였다. 이것은 작가가 자연만물로부터 感興을 받고 그것을 적절하게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陸機는 문학 창작에 있어서 예술적 구상과 문학적 표현이 둘다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하면서 작가의 구상[意]과 표현 대상인 사물[物] 그리고 표현[文]이 문학 창작에서 조화롭게 잘 어울려야 한다고 하였다.

漢대 이후 제정되었던 유교 이념이 魏晉시대에는 國教라는 의식은 매우 약해졌지만, 당시 지식인들은 여전히 유가의 학문 소양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자연만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성향이 강한 도가사상과 인도로부터 유입된 佛學이 혼합된 새로운 自然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문학 창작에 있어서

29) 張懷瑾 著, 『文賦譯注』, 北京, 北京出版社, 1984. p.20.

30) 張懷瑾 著, 위의 같음.

자연 이치와 자연물이 문학 창작의 주요 요소가 된다는 수사의식을 형성하였다.

劉勰의 『文心雕龍』은 「原道」, 「徵聖」, 「宗經」편 등에서 유가의 사회 교화적인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한 것 이외에도, 「物色」편에서 “자연만물의 변화에 사람의 마음 역시 움직이며, … 작가의 감정은 만물에 따라 움직이고, 작품은 각자의 감정에 따라 드러난다.(物色之動, 心亦動焉. … 情以物遷, 辭以情發.)”³¹⁾라고 하였고, 또 「明詩」편에서도 “사람은 각기 다양한 정감을 타고 나는데, 외부사물에 영향을 받는다. 사물에 느낌을 받아서 자신의 뜻을 읊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없다.(人稟七情, 應物斯感. 感物吟志, 莫非自然.)”³²⁾라고 하였다. 이처럼 劉勰 역시 문학 창작에 있어서 시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만물의 미묘한 느낌을 받아 생성된 자신의 정감을 글에 의탁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유희은 문학 창작 과정에 있어서 자연물의 관찰과 교묘한 묘사가 작품 성공의 관건이라 하여, 「物色」편에서 “감정의 움직임을 풍경에서 살펴보고, 풀과 나무에서 실제 모습을 하나하나 관찰하여 묘사한다. 마음을 읊는 것에는 뜻을 깊고 멀리 갖는 것이 중요하며, 교묘하게 풍물을 그려내는 데에는 대상을 밀착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竅情風景之上, 鑷貌草木之中, 吟詠所發, 志惟深遠, 體物爲妙, 功在密附.)”³³⁾라고 하였다.

鍾嶸 역시 그의 『詩品』서문에서 “氣가 사물에 움직이게 하고, 사물이 사람에게 느낌을 준다. 그러므로 性情이 꿈틀대어 노래와 춤으로 나타난다.(氣之動物, 物之感人, 故搖蕩性情, 形諸舞詠.)”³⁴⁾라고 하였다. 이것은 시 창작에 있어서 자연물과의 상관관계를 밝힌 것이다. 특히 종영은 氣가 만물에 작용하고, 이것이 작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춤이나 노래와 같은 문예로 형상화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종영의 氣에 대한 논의는 曹丕가 문학 창작에 있어서 작가

31) 劉勰 著, 詹鍔 義證, 위의 책, p.1728.

32) 劉勰 著, 詹鍔 義證, 위의 책, p.173.

33) 劉勰 著, 詹鍔 義證, 위의 책, p.1747.

34) 鍾嶸 著, 陳延傑 注, 『詩品注』, 臺灣, 開明書店, 1964, p.1.

의 고유한 개성으로서 氣를 중시하였던 文氣論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종영이 제기한 氣가 천지간에 그득하여 자연만물을 생성하게 하는 에너지와 같은 존재라는 식의 철학적인 언급은 아니었지만, 이제껏 앞선 논자들이 山水나 事物과 같은 현상계에서의 자연만물에 대한 수사의식이 문학 창작의 주요 관건이라고 거론하는 것에 머물러 있던 것에 비하여 종영은 氣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서 문학 창작에서 자연물의 작가에 대한 작용을 구체화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처럼 위진남북조 시기는 중국 문학사에 있어서 문예 이론과 창작활동이 매우 활발하였던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문인 지식인 계층은 자연계와 인간사회에 대한 뚜렷한 자각을 통해 사상과 문학 방면에 새로운 활기를 표출하였던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중국 문학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문학 장르는 단연 詩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의 시가문학이라고 하면 지배계층의 문인 지식인들이 한가하게 자연을 대상으로 吟風弄月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자연물과 관련한 중국의 시가문학 연구가 田園詩나 山水詩가 출현한 晉대와 南朝시대 이후로 자연경물을 연구 대상을 삼거나, 자연만물을 제재 대상으로 하는 시 작품들을 읽고 감상하는 것을 주요 연구 범주로 삼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자연물과 관련하여 중국의 언어문자와 문학 창작에 있어서 수사의식이 생성되고 발전해 간 양상에 관한 연구는 한층 시대를 더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 논점의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언어와 문자는 매우 독특한 요소를 가지고 발전해 왔다. 다른 지역의 고대 문자들이 초창기에는 대개 象形文字 즉 表意文字였다가 表音文字로 전환하여 보통 사람들도 수월하게 익혀서 다른 이들과 소통하는 도구로 발전

해 갔던 것에 비하여 중국의 문자는 애당초 우주 만물의 주재자인 上帝의 뜻을 구현하기 위한 神聖文字로 고안되었다. 문자가 자연만물의 영험한 세계와 소통하는 신성한 수단이었으며, 이것을 통해서 통치자는 자신의 권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이처럼 고대 중국 왕조의 통치계급들이 신과의 소통을 빌미로 문자를 고안하여 이용하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문자를 쉽게 익혀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신성하게 여겨지던 자연만물이 중국의 언어와 문자의 형성 연원이 되었던 것은 물론이고, 중국 문학의 창작에 있어서 수사학의 형성에도 크게 작용하였다.

周代에는 인간 중심의 문화가 비로소 태동하였으며, 고대 중국에 있어서 어떻게 글을 쓰고 말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수사학이 이때 비로소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周代 후반기인 春秋와 戰國時代에 나타난 諸子百家의 사상과 이념을 펼친 여러 논저들은 중국 수사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人文의 시대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때에도 자연물의 생성근거라고 할 수 있는 하늘과의 고리를 완전히 떼어내지는 못하였다. 秦始皇의 통일왕조와 儒家가 국교가 된 漢왕조를 거쳐서 魏晉南北朝時代에 이르러야 비로소 중국 문학의 자각기이면서 문예가 번성하는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예사조의 흐름에 있어서 자연물은 줄곧 깊은 연관관계를 맺고 문학 창작에 있어서 수사학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왔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자연물을 숭상하며 자연현상에 조화롭게 대처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였고, 하늘의 이법으로 여겨지던 天道를 궁구하여 그렇듯 살아가고자 했던 자연 친화적인 사상인 유가나 도가사상이 언어와 문자의 형성과 문학 창작 방면에서 수사학에도 깊은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고대 중국에 있어서 수사학의 형성과 발전의 과정에 있어서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말과 글에 자연의 이치나 자연현상 혹은 자연물을 빗대어서 자신의 주의나 이념을 내세우려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중국 역사와

문화의 특징적인 요소로서 漢字와 儒家, 道家를 중심으로 하는 사상적 바탕과 농경문화 전통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요소는 서로 별개인 것 같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서 자연만물과 깊은 연계를 가지면서 하나의 끈처럼 엮여서 중국적인 문화현상의 특징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국 수사학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있어서 자연물과 그들의 자연만물의 이치만이 전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한 문화현상과 관련지어서 고대 중국의 언어와 문자를 효과적으로 구사하려는 수사의식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탐구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張懷瑾 著,『文賦譯注』,北京:北京出版社,1984
- 鍾嶸 著,陳延傑 注,『詩品注』,臺灣:開明書店,1964
- 駱小所 周藝 著,『修辭學導論』,昆明:雲南人民出版社,1999
- 白川靜 著,『字統』,東京:平凡社,1984
- 白川靜 著,『漢字百話』,東京:中央公論社刊,1985
- 梁東淑 著,『甲骨文解讀』,서울:月刊 書藝文人畫,2007
- 王先謙 著,『諸子集成』,北京:中華書局,1990
- 王弼 注,『老子注』,北京:中華書局,1990
- 劉勰 著,詹鏜 義證,『文心雕龍義證』,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9
- 赤塚 忠 著,『中國古代の宗教と文化-殷王朝の祭祀』,東京:角川書店,1977
- 鄭子瑜 著,『中國修辭學史稿』,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4
- 朱熹 撰,『四書章句集注』,北京:中華書局,1995
- 暢廣元 主編,『中國文學的人文精神』,西安:陝西人民出版社,1994
- 清 阮元 校刻,『十三經注疏』,北京:中華書局,1980
- 許慎 撰,段玉裁 注,『說文解字注』,臺北:黎明文化事業公司,1990
- 魯迅 著,『魯迅全集』 제3권,人民文學出版社,1989
- 小尾郊一 著,尹壽榮 譯,『中國文學 속의 自然觀』,춘천:강원대학교출판부,1988
- 施昌東 지음, 김예호 등 역,『중국의 미학사상』,서울:신지서원,1994
- 김경수 등 저,『동서양 문학에 나타난 자연관』,서울:보고사,2005
- 김현창 저,『세계문학 속의 동양사상』,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2000
- 박우수 양태종 역,『인문과학과 수사학』,서울:고려대 출판사,2003
- 白川靜 著,이경덕 옮김,『주술의 사상』,서울:사계절,2008
- 조민환 저,『중국철학과 예술정신』,서울:예문사원,1998
- 許進雄 著,洪熹 譯,『중국고대사회』,서울:동문선,1998

Abstract

A study on the shaping and developing of rhetorical device, and the correlation of natural object during the ancient China

Moon Seung-yong

The Chinese rhetoric started in The Shang Dynasty. The Shang Dynasty started to write their thoughts. The Chinese invented the writing system known as the inscriptions on bones and tortoise carapaces. The priests using the inscriptions divined what would happen the future. The inscriptions were not the vehicle of human thought, were the supreme authority of the Lord on High. It came from respect of all things in nature, and was imitated the nature and the principle of nature.

The Western Zhou Dynasty tried to deny The Shang Dynasty's theocratic rule. It means the start of humanities times in ancient China. Through making a lecture and writing on their thought, 'all philosophers and scholars' were to awaken the true meaning of all things in the universe. It was the beginning of rhetoric in the ancient China. The rhetorical origin took rise in 『Zhouyi』said "use a flowery style, must be in the right frame of mind.(修辭立其誠)".

They generally used water as a rhetorical device, and the source of all things in the universe. For example, Confucius said "Some people like mountains while others like water.(樂山樂水)", Lao-tzu said "Water's virtue is the highest goodness.(上善若水)". They utilized the chief element of water.

The Period of Wei, Jin and Northern & Southern Dynasties was a kind of the Renaissance period in Chinese art and literature. Especially Luji's 『Wenfu』, Liuxie's 『The literary mind and the craving of dragons』and Zhongrong's 『Shipin』made many meaningful arguments about shaping and developing of rhetorical device, and the correlation of natural object during the ancient China.

The nature and the principle of nature played an important role on the shaping and developing of the Chinese rhetoric.

Key Words : inscriptions on bones and tortoise carapaces, the nature and the principle of nature, Water`s virtue, rhetorical origin, Luji`s Wenfu, Liuxie`s The literary mind and the craving of dragons, Zhongrong`s Shipin

투 고 일 : 2014. 5. 10. / 심 사 일 : 2014. 5. 20.~ 2014. 6. 15. / 게재확정일 : 2014. 6. 20.